



병원 사목에 있어서의 의사의 역할

성 빈센트 병원
의무원장

金 楨 鎮

복음성경에는 여러가지 질병을 가진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를 위시하여 소아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등 각 전문분야에 걸친 환자들이 그리스도께 간청하여 병이 나음을 받았읍니다. 그래서인지 포교지방에 나가는 선교사들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의약품을 쓸줄 알고 이때문에 복음전파의 성과를 얻었고 한국만 하더라도 밋손계 병원이 많읍니다. 어쨌든 의학은 복음전파의 빠질 수 없는 메디아가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고 의사는 개인 사도직으로써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짧은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醫師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의 생활의 보람에 대해서 남달리 人生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의학전체의 동향도 순수하게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만 人間의 身體현상을 연구하는것이 아니고 自然현상보다는 人間현상으로 파악해 나가야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은 人間の 일부인 身體의 면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人間 전체가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좋은 개인 사도직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니 병원사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 내용을 제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 ×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삼는 생물학적 人間은 이 세상의 왕이고 人間 이상의 것은 없고 절대자는 바로 人間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교에서 인식하는 人間은 아닙니다. 자유와 지성을 받은 人間의 人生의 목적으로 창

조되었지만 천주께서는 초자연적 목적을 위하여 人間이 필요하다고 보셨읍니다. 그러기에 人間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고 비록 아담의 반역으로 은총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초자연적 은총의 세계를 되찾을 수 있었읍니다. 따라서 人間이 자연적 세계에만 속한다고 하면 그는 반병신 人間입니다. 肉身과 영혼, 자연과 초자연이 합쳐서 비로소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人間은 초자연적 목적으로까지 도달하려고 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人間은 神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고 神에 도달할때까지는 불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초자연은 헤아릴 수 없이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小宇宙라고 말하는 人間을 대상으로 하는 醫學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던 十二사도들도 성신강림으로 이성은 강해지고 의지는 굳어지고 나중에는 치명 순교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人間은 사회에 속한 멤버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의 一員입니다. 교회현장에도 있듯이 그리스도는 만민의 빛이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肉身을 아끼는 이유도 人間이 성신의 궁전이고 그리스도 신비체의 一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人間을 인식할때 그 초자연적인 면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 ×

다음에는 人間에게 있는 질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멘 처음」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人間이 하느님께 반역한 결과 인간은 고통, 질병, 빈민등이 남게된 것입니다. 신상의 입장에서볼때 질병은 범한 죄의 벌이기도 하고 영혼의 단련수단이기도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구원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영혼을 사색하게 하고 초자연적 덕을 얻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같이 짊어지는 구령의 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人間の 건강이 善이라면 이는 육체적 정신적 지성적 종교적 바탕위에 이들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룬 상태이고 이들 관계의 부조화는 인간존재의 바탕을 흔들며 생명안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질병이라 하겠읍니다. 이렇게 보면 질병이란 人間과 하느님과와의 유대관계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다 주며, 하느님과의 관계의 부조화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란 육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부조화현상인 동시에 心靈의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 초자연적 특징을 지닌 人間에게 있는 질병은 肉體的 면만 국한시켜 생각하면 안되며 질병을 人間에게서 분리해내서 그 질병만을 상대로 치료를 한다면 온전한 것이 못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X X X

人間과 질병의 그리스도교적 인식은 가톨릭의 사의 사도적 활동의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의사란 개인적 사회적 사명을 가져 이점에서는 사제와 유사하고 人間の 건강유지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연장하는 직책이라고 말합니다. 이점 크리스찬이 아닌 의사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카톨릭의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알 수 있고 항상 人間の 병고를 보고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접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소명감을 느끼며 사도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뿐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평신도 사도적 교령에 「모든 사도적수행이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힘을 얻어야 하지만 어떤 활동은 본질적으로 생생하게 사랑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있고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는 본질적으로 생생하게 사랑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직업이며,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듯이 모든 사도적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힘을 얻는 것이기에 가톨릭의사의 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고 이 사랑없이는 의사의 일도 고달파지고 말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마르코 12, 31)는 복음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인 환자에게 베푸는 사랑은 바로 주님의 둘째가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비오 12世는 「의사 여러분들은 병실에서 또는 수술대에서 주님의 사랑, 肉體와 정신의 의사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국제적인 의사의 모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와 정신의 의사」라는 이 말씀은 가톨릭의사가 깊이 음미해야 될 줄 믿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가톨릭 의사가 「육체와 정신의 의사」가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올바른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읍니다. 내 이웃인 환자에게서 하느님의 모습과 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내면적 근거에서 영혼의 평안함이 건강 회복의 필연적 전제임을 자각하고 애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면 환자는 이를 알아차리고 말 것입니다.

X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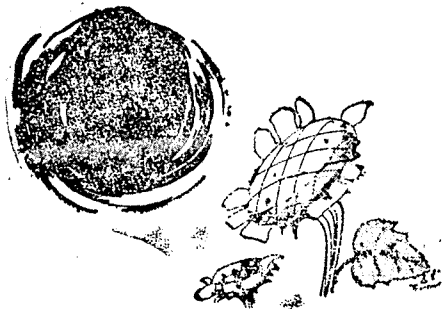
건강해져야겠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환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열심히 가톨릭신자인 환자도 성직자보다 의사를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학력, 경험에 매달리고 의사의 동정 이해 사랑에 기대합니다. 의사는 환자들의 유일한 依恃입니다. 의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즉 인사하는 방법, 의사의 눈길, 얼굴표정, 말씨, 태도 등 모두가 환자에게는 뜻있게 반영됩니다. 적절한 시간에 환자의 고독의 시간에 일부러 찾아가서 던져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는 십사리 환자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

환자 중에는 종교란 자기위안의 수단으로 보기도 하고, 병고중에 神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동정하고 사랑을 주어 기도중에 특히 미사중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실망, 그들의 육체적 고통을 바쳐줌으로써 그리스도와 의 일치점을 갖는 가운데 단혀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마음의 문만 열리면 손쉽게 성직자에게 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 비로소 종교적 병원의 참다운 치료가 이루어

어 지고 동시에 사목활동은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자기 전문분야에서 환자를 치료하듯이 성직자는 또한 영혼구원에 있어서의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성직자나 의사는 서로가 가지는 한계를 각각 지켜야하며 자기의 맡은것 이상의 것은 상호간의 협조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환자를 성직자에게 인도하는 「중개자」의 역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모님이 「중개자」인 것처럼, 의사는 중개자의 교량역할을 자기의 사도직으로 자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평신도 교령에도「지금 이 시각에도 그대들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들을 움직여 주시는 성신께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속히 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심판 때 그리스도께서는 의사에게 「내가 병들었을때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었습니까?」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애덕의 정신없이 의사의 성소

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바로 환자안에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애덕을 찾으려면 먼저 기도의 생활이며 특히 미사봉헌과 영성체입니다. 그러므로 카톨릭 의사는 애덕으로 자신의 성소를 훌륭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사랑의 원천인 성체성사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생활의 중심이 미사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미사를 중심으로한 신자의 생활은 바로 기도이며 은총안의 생활입니다. 그럼으로써 카톨릭 의사는 「육체와 영혼의 의사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의사인 그리스도」를 닮아보겠다는 정신적 자세는 「본질적으로 생생하게 사랑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가톨릭 의사가 반드시 지녀야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신적 자세의 실천은 병원사목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실한 중개자 역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로는 항상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온갖 질병과 비참에 대한 최대의 치료법이다.

<카알라일>